



불꺼진 소주방, 불꺼진 노래방

15일 새벽 2시30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유흥업소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새벽 2시부터 간판을 소등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소들이 이에 어랑곳 하지 않고 조명을 켜 채 영업을 하거나 업소에 따라 불을 끄는 등(왼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배짱영업'에 효과없는 옥외 야간조명 규제 유흥가는 아직도 '불야성'

자사고 자율권 박탈

광주시교육청, 신입생 선발방식 선택 못하게

새벽 2시 소등 노래방·유흥주점 형평성 논란도

정부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옥외 야간조명 규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말 에너지 주의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 뒤, 각 지자체에 심야시간대 공공기관과 민간 시설물의 불필요한 야간조명을 규제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내릴 것을 지시했다. 지경부 규제안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나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조명을 꺼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을 사무용 건물은 '밤 12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그러나 심야시간대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의 경우 '새벽 2시 이후' 외부 조명을 켤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노래방은 사실상 업주 자율에 맡기는 등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지 규제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유흥업주는 제도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규제안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도 현실성 없는 규제안으로 인해 단속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업종의 성격상 일몰 직후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가 간판 등의 조명을 켜놓고 있으며, 특히 새벽 시간대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새벽 2시부터 소등하라는 것은 사

실상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이 소등 시간과 비례한다면 간판 소등시간을 심야시간대가 아닌 오후 6시부터 특정 시간대까지로 규정하면 에너지 효율면에서는 동일한 만큼 소등 시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노래방의 경우, 가요반주기의 전기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안이 '영업 시간의 소등'으로 업주 자율로 돼 있어, 사실상 노래방들은 심야 시간 내내 불을 켜고 있는 실정이라서 규제안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 역시 "정부가 불필요한 야간 조명을 규제해 에너지를 관리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방안이 현실 상황과 동떨어져 있어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규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자공고 전환 공모도 안해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전형 선택권을 박탈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의 자율권을 박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고교 가운데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해야 하는 절차도 밟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5일 광주와 대전 등 자율형 사립고 14곳에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선택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는 "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에 자사고 입학전형에 도입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입학전형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들 학교는 기존 내신(학교 석차 백분율 20~50% 이내 지원 가능)+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 온 것과 달리 2012학년도 전형에서는 자사고 입학전형이나 내신, 내신+추첨 3가지 중 선택, 적용하게 된다. 자기도 전형은 내신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며 정처자급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혈액 검사, 지식을 확인하는 면접 등을 할 수 없다. 교과부는 자사고 입학전형에 유도하기 위해 이 방식을 택하는 학교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연철뉴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자사고 3곳 가운데 송원고, 송덕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나머지 보문고는 일부(30%)를 자기주도 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의견을 교육청에 제시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측의 의견을 묵살한 채 광주지역 자사고 3개교에 전형(내신+추첨)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시 교육청은 자사고가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송원고, 송덕고는 일부(30%)를 자기주도 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의견을 교육청에 제시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측의 의견을 묵살한 채 광주지역 자사고 3개교에 전형(내신+추첨)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시 교육청은 자사고가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송원고, 송덕고는 일부(30%)를 자기주도 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의견을 교육청에 제시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측의 의견을 묵살한 채 광주지역 자사고 3개교에 전형(내신+추첨)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연철뉴스

긴급조치 1호 위반 1억8천만원 형사보상

대법원 결정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7년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오종상(70)씨의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국가

는 오씨에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형사보상법은 구금된 피고인이 재심 등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일수와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철뉴스

재판부는 오씨가 구금된 1123일 동안 일일 보상액을 16만4400원으로 정했다. 오씨는 1974년 버스 등에서 여고생에게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는데 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관에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 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나"는 등 정부와 유신헌법을 비판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1977년 7월까지 복역했다. /연철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3분 해질 18시 40분
달돋이 14시 44분 달질 03시 56분

오후 한때 비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5mm 미만.

광주	오후한때비또는눈	-1/7℃
목포	오후한때비또는눈	0/7℃
여수	구름점차어짐	1/7℃
나주	오후한때비또는눈	-3/7℃
완도	구름맑음	0/8℃
구례	오후한때비또는눈	-2/8℃
해남	구름맑음	-3/8℃
장흥	구름맑음	-2/9℃
순천	구름맑음	0/8℃
영광	오후한때비또는눈	-3/6℃
진도	구름맑음	-1/8℃
전주	오후한때비또는눈	-3/6℃
군산	오후한때비또는눈	-3/6℃
남원	오후한때비또는눈	-5/6℃
혁신도	구름맑음	1/6℃

지외선지수: 보통, 식중독지수: 관심, 뇌졸중지수: 낮음

시간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목)	18(금)	19(토)
날씨	☀	☀	☀
최저/최고	-2/11	-1/13	4/15
20(일)	21(월)	22(화)	
날씨	☁	☀	☀
최저/최고	5/11	3/9	1/9

정정당당 재선거 '민주주의' 배웠다

'콜팝' 공약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다시 뽑아 명예회복

어린이회장 후보자가 무심코 던진 '선심성' 공약으로 논란(광주일보 3월 14일 8면)이 된 광주 지역 한 초교의 학생들이 유례없는 재선거를 실시해 정당하게 회장을 선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학교측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처리 하고 차순위 득표자를 회장에 임명하려 했으나, 학생들은 재선거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 하려고 의견을 모으는 등 의지찬 모습을 보여 어른들을 무색하게 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초등학교는 이날 오전 강당에서 4~6학년 학생 50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1학년도 전교 학생회장 재선거'를 실시했다. 선거결과 지난 11일 실시했던 선거에서 2위였던 6학년 김도(13)군이 234표를, 3위였던 박모(13)군이 166표를 얻어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古家 고향의 맛

고가약오리탕

진정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엄선된 약재와 까다로운 재료 선별로 최고의 맛과 건강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모든 조리과정에 정결함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식 완비

점/심/특/선	약오리탕
오리탕 5,000원	1마리 36,000원
11:30~1시 까지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예약문의 062)226-8254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취학어린이	미취학어린이	토·일·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취학어린이	미취학어린이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